



텅 빈 우사, 공허한 마음

안희경
농수축산 신문 기자

새벽 4시. 절로 눈이 떠진다. 아직 추운 바깥 날씨지만 기다리고 있는 소를 생각하며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신발을 신고 마당을 지나 갈 때까지도 미처 몰랐다. 텅 빈 우사를 보고서야 정신이 든다. 축사 앞에 자리한 매물지를 보고야 모든 젓소들이 살처분 당했다는 아픈 현실이 다가온다. 황망한 마음에 주저앉아 새벽동이 틀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다. 오늘은 어디라도 가서 입식할 젓소들을 알아봐야겠다. 살아있어도 사는데 아닌,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을 당한 낙농가들이 전체 낙농가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3만7000마리 이상의 젓소들이 농가들의 앞마당에 묻혔고 착유소도 2만마리 이상이 살처분을 당했다.

청춘을 바쳐 일궈온 목장들이 한 순간에 날아갔다.

상중에도 상복을 벗고 착유를 해야 했던 그들의 낙농인생, 구제역으로 모든 것을 잃고 뼈를 저미는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하루 하루. 그들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다.

세계최고 산유량 젓소, 모조리 매물

K씨의 목장은 유명하다. 낙농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선진목장으로 이름을 날려왔다. 세계최고 산유량 전국 1등에서 3등까지가 모두 이 목장의 젓소였다. 그리고 2011년 3월 현재 그에게 남은 젓소는 한 마리도 없다. 281마리 전마릿수를 살처분 당했다.

“체형을 강건히 만들고 수명을 연장해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것이 정부가 내건 낙농산업의 모토였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 젓소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온 최고의 젓소들을 폐차취급하더군요.”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한 힘순이는 생애 산유량 14만9,440kg을 돌파한 젓소였다. 총 10산이었으니까 일년이면 약 1,000만 원을 넘는 유대를 벌어들인 놈이었고 10여 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유대수입을 올렸던 놈이었다. 이번에

힘순이는 살처분당하면서 폐소로 취급, 약 7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K씨는 고능력우들의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고 있다. 그들이 벌어들이던 수입을 감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돼 있는만큼 종개협산출가로 보상을 해달라는 말이다.

“종축개량은 국가 축산정책의 1순위였습니다. 농식품부의 축산정책 중 검정 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작년 초 발생한 구제역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살처분 당한 젖소 3만 7,000여 마리 중 고능력우로 인정받는 젖소는 200마리가 채 되지 않는다. 10산을 하며 생애동안 엄청난 원유를 생산한 젖소 힘순이는 당연히 고능력우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액값도 안되는 송아지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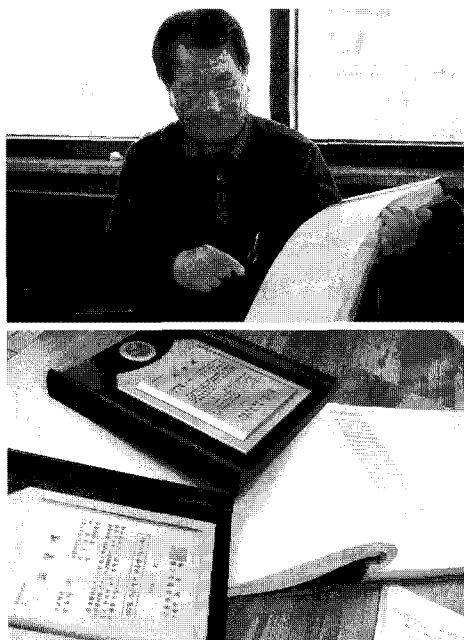
S목장은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매년 우수소를 출품하던 검정계의 스타목장이다.

등이 곧고 우람한 체형을 자랑하며 모습만으로도 당당했던 홀스타인 품평회의 스타소들도 이번 구제역으로 모두 살처분당했다.

“김포지역 살처분 농가들은 대부분이 평균 산유량 1만kg 이상 소들을 모두 살처분 했습니다. 이 소들을 키워내는데 든 돈이며 노력은 말할 수도 없지요. 단순한 수치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수정하는 데만도 3번이 넘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정액도 최소 5만원 짜리로 쓰고 수정사가 와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사에 대한 노임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도 암송아지가 나올 확률은 50%니까 비용은 두 배로 오르죠. 지금 송아지 정부보상 가격이 얼마줄 압니까. 8만원 돈이 조금 넘습니다. 정액 값도 안되는 거죠.”

한우에는 있는 송아지 안정자금이 왜 낙농에는 없는 것일까. 수급 편차에 따라 천차만별인 젖소 송아지 가격을 왜 실가 조사를 하지도 않는 것일까. 농가들은 할 말만 쌓여가고 있다.





30살 낙농가 아가씨,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올해로 30살이 된 Y씨는 낙농을 시작한 지 꼭 10년째 됐다. 엄마와 둘이 목장을 꾸려나가면서 모녀 목장 등으로 꽤 많은 유명세를 탔다. 이러저러한 방송에 나온 것만도 여러 번. 또래 친구들은 예쁜 치마를 입고 나들이를 다닐 때 작업복을 입고 착유장으로 향했고 고운 화장품으로 얼굴을 치장할 때 목장을 돌보느라 검게 그

을린 얼굴로 젓소와 함께 했다.

그렇게 키운 목장과 젓소들은 지금 온데 간데 없다. 전체 살처분으로 남은 젓소는 한 마리도 없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안 날 것 같았는데…”

Y씨는 괜찮냐는 말만 들어도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Y씨가 바라는 것은 많은 보상금이 아니다. 목장을 재개할 수 있는 자금, 그러니까 청춘을 바친 목장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으면 된다.

Y씨의 32살 먹은 오빠 B씨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나름 잘나가는 기업에 취직해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목장이 점점 커져가고 여동생과 엄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목장으로 들어왔다.



한참 목장일에 적응을 할 무렵 구제역이 터졌다. 목장으로 시집간다고 고생길이 흰하다며 말리는 주위 사람들을 뿌리치고 목장으로 들어왔던 B씨의 새색시는 결혼 7개월만에 그만뒀던 직장을 다시 나가고 있다. 큰 목장 사모님이 왜 다시 일을 하냐고 묻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지금은 젓소가 살처분 당하면서 모든 수입이 끊긴 상태.

거대한 목장이 있어도 당장 살 길이 막막한 것이다.



목장 후계자들, 생계 위해 공장일까지

P목장의 후계자 이 씨는 축산을 전공하고 아버지 목장을 이어받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다. 목장의 선진화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고 지역 낙농 후계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공부할 만큼 열성적이었

다. 그런데 구제역을 맞았다. 노력해 온 모든 것이 날아갔다. 시설 보수를 하던 목장은 주인을 잃고 텅 비었다.

“지역에 모여서 기술을 공부하고 선진 낙농을 꿈꾸던 친구들 중 7명이 구제역을 맞았습니다. 크지 않은 목장이지만 잘 꾸려서 아버지 때보다 더 큰 목장을 만들겠다는 친구들은 지금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 자식들이 있는 가정이니까 생계를 위해 앓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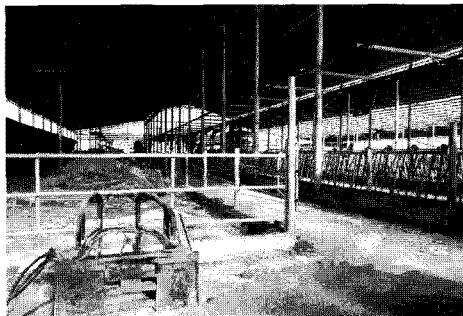
참담한 현실이지만 목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걸어다닐 때부터 젖소를 만졌고, 낙농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공장을 다니는 것도 일시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다니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버리면 다시는 목장에 돌아올 수 없을까봐. 그러면 다시는 낙농이 하기 싫어질까봐…”

말을 다 잊지 못하는 젊은 낙농인.

그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재개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할 때보다 훨씬 훌륭하게 목장을 이어나갈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구제역이 찾아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강한 목장’을 만들기 위해 재기를 꿈꾸고 있다.



부분 살처분이 더 문제

C씨는 낙농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다. 크고 작은 지역의 낙농관련 일을 위해 앞장섰고 낙농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개량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는 선진목장을 일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는 이번 구제역으로 부분 살처분을 당했다. 전체 마릿수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90여 마리를 땅에 묻었다. 문제는 이 살처분 젖소들이 모두 착유소라는 점이다.

“착유소만 모두 묻고 송아지가 70여 마리 남았습니다. 아예 다 죽었으면 사료값이라도 안들지. 젖도 못 짜는 소들이지만 사료는 따박 따박 먹고 있죠. 그런데 우리목장은 부분 살처분 농가라서 보상금도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죠.”

그래도 전체 살처분을 당한 L씨는 송아지라도 남아있는게 어디냐며 그 소



현장취재



키워서 젓짜면 되지 않느냐며 힘없이 농담을 던진다.

부분 살처분 농가들의 경우 구제역 종료 후 한 달까지만 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C씨는 4월 초에는 자금이 전면 중단되고 사료만 먹는 송아지들을 데리고 2년여 정도는 아무런 수입 없이 목장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살처분 634농가, 재입식 의지 100%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을 당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약 634농가 정도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 키운 소니까 평생 바친 소니까 합당한 가격을 쳐달라는 말이 아니다. 최소한 일어날 수 있는 자금, 재입식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살처분 가축 보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고능력 우 보상기준은 상위 50%가 아닌 검정성적 평균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혈통세대에 따른 추가보상도 삽입해야 합니다.”

이들은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낙농에서 물러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죽어도 젓소와 함께 죽겠다는 낙농이 천직인 사람들이다.

“재입식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런데 젓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젓소 수입을 위해 위생조건을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목장만 재개하면 된다는 우리 주장이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가 살처분 젓소 보상가격으로 기준하는 농협중앙회 젓소 시세는 초산우의 경우 280만 원이다. 그러나 정작 280만 원으로 과연 초산우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키우던 젓소들은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팔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에 1,000만 원짜리 죽었으니 1,000만 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입식만 할 수 있게 현실적인 보상금을 달라는 겁니다. 목장에서 꼭 다시 젓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허한 그들의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재기의 그날이 오기를 함께 소망해 본다. ⊕